

# 시 한 구절·통기타 선율…양림동서 물드는 가을



13~15일 양림동 일원

숲속 음악회·국내외 작가 전시

테마여행·엽서 만들기 체험도

오웬기념각, 우일선 선교사 사택, 다형  
다방, 펭귄마을, 한희원미술관….

구한말에 지어진 고래등 같은 한옥과  
소박한 민가, 현대적인 문화 공간 등 100  
여 년 전의 문화와 정취가 고스란히 남겨  
져 있는 양림동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  
보자.

'제7회 굿모닝 양림'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및 사직공  
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바들피리 소리 들려오는 가을 이야기'  
를 주제로 양림동 역사, 문화, 인물, 근대  
유산 가치를 재조명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시인 안도현

13일 오후 7시 사직공원에서 열리는 오픈空气인 '가을 숲 속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김선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가수 박강성 등이 출연한다.

양림동과 인연 맺은 화가들 작품, 100년  
역사를 담은 사진 등 전시는 축제 개막에  
앞서 11일 마을 미술관 곳곳에서 문을 연다.

음악회, 오페스트라, 문화 낭장, 통기타  
연주, 재즈 페스티벌 등의 공연이 축제 기  
간 동안 무대에 오른다.

가을 숲 속 음악회를 비롯한 꿈의 오케

스트라 조정공연, 날아라 펭귄, 양림 문화  
난장, 양림의 가을 하모니, 사직 통기타 데  
이, 해와 달 밴드 초청공연, 클래식과 싱어  
즈의 가을여행, 합세아의 토크 콘서트 등  
이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통기타 디제이 콘서트와 가을  
빛 사직골 향연, 음악극으로 본 양림, 양림  
재즈 페스티벌, 훌리 양상설 콘서트 등이  
관람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문화 탐방, 주제 여행, 시화 등 시민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참여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토, 일  
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양림동 테마 투  
어, 수피아여자중학교 학생 300여 명과 함께  
하는 수피아소녀들의 양림시화, 엽서에  
시와 그림, 사연을 적어 우편으로 발송하  
는 가을우체통 등이 준비됐다. 또, 양림  
100년 역사문화탐방, 양림 생생여행, 사진,  
숲 속 시인의 책방, 양림 숲 속의 화가들,  
나도 양림의 시 낭송가, 양림동 근대예술  
여행, 양림의 영화 상영, 오소호 시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 양림쌀통 등이 마련됐다.

특별무대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인문학  
강좌인 '너에게 묻는다'와 양림재즈페스티  
벌, 더(the) 1904 아카데미를 만날 수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문화로 잊는 전라도 새 천년…13~15일 '전남생활문화예술페스티벌'

버스킹·체험행사 등 다채

"전라도 천년, 문화로 읽고 예술로 잊  
다"

10월 18일은 전라도 명칭이 생긴 지  
1000년이 된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당시 전북지역을 관할하던 전주목과 전남  
제주의 중심이던 나주목의 첫글자를 따서  
전라도가 됐다. 전라도의 천년은 그만큼  
오랜 역사성과 향토성을 지닌다. 전라도인  
들의 삶과 예술이 오늘의 남도 문화를 이  
루는 토대가 됐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깊어가는 가을 전남의 생활과 문화, 예  
술을 아우르는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문화관광재단(문화관광재단·사무처  
장 오영상)은 도민과 함께하는 '2017 전남  
생활문화예술페스티벌'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무안군 중앙공원에서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남문화예술교육 지  
원사업 수행단체 42곳의 성과발표회를 비  
롯 생활문화예술 단체 11개 팀의 공연, 클  
래식·국악·락 공연, 예술체험 행사, 아트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첫 날인 13일은 전야제가 펼쳐진다.  
'夜·한밤의 흥겨움'이라는 테마로 '히  
어로'의 댄스무대가 막을 열고 인디밴드



지난해 열린 '전남생활문화예술페스티벌' 모습.

인 럭그룹 '무음'과 '밴드민하'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 14일은 소호초등학교 '여수영  
재오페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행사  
가 펼쳐진다. 이어 영화 파파로디 실제 주  
인공 성악가 김호중, 바퀴달린 성악가 이  
남현의 축하공연이 선을 보인다. 또한 광  
양시립국악단과 순천 이윤천 벌레단의 공연  
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상설행사로는 거리마임퍼포먼스(극단  
새결), 손 인형 만들기(인형극단 푸른고

연, 힙합 그룹 '긱스'의 희희樂ROCK 페  
스티벌이 선을 보이고, 찾아가는 영화관  
'청년경찰'을 상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 15일에는 극단 아띠의 '거리  
인형극', 청춘마이크 버스킹 공연, 목포문  
화재단의 '가족오케스트라', 나주시립국  
악단의 '국악관현악', 서영무용단의 공연  
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상설행사로는 거리마임퍼포먼스(극단  
새결), 손 인형 만들기(인형극단 푸른고

래), 아름다운 구조물 조립(한국흙건축연  
구회) 등 30개 단체가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아트마켓'을 비롯해 (전통놀이 체  
험), 문화재발굴체험, 전남관광사진전, 문  
화파출소 판화그리기, 문화다양성 도민  
캠페인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061-  
280-584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농촌·어촌·산촌 三村에서 만나는 착한 농부

이연복

강례오

매주 금요일 밤 8시 20분

유쾌한 삼촌

착한 농부를 찾아서

CHANNEL A

## 강숙자오페라라인 '마술피리' 공연

윤상호 연출·김영언 지휘…12~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윤승호



윤한나

(㈔강숙자오페라라인의 제25회 정  
기공연 오페라 '마술피리'가 오는 12  
일, 13일 오후 7시 30분, 14일 오후 3  
시, 7시30분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  
극장에서 열린다.

(㈔강숙자오페라라인이 준비한 이  
번 오페라는 2막으로 구성돼있는 모  
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로 모차르트  
특유의 감성이 담긴 작품이다.

어둡고 빛의 대결,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 179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  
연됐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에서 독일 전통  
오페라를 하나의 장르로 완성했을 뿐  
만 아니라 오페라 세리아와 오페라 부  
피의 요소도 도입, 종합적인 작품을  
완성했다.

'마술피리'는 왕자 타미노와 공주  
피미나가 갖가지 시험과 고초를 통  
과하여 마침내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  
으로 소프라노 조수미의 주요 레파  
토리인 '밤의 여왕' 아리아로 잘 알려  
져 있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윤상호가 지휘  
는 김영언이 맡았으며, 광주시티 챔버  
오케스트라와 KOI 합창단, 피아니스  
트 오하은, 윤상아와 협연한다.

타미노 역에 윤승호, 김정규가, 파  
미나 역에는 윤한나, 정수의, 손숙경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김한호·강만 등 지역 작가 작품세계 탐구

광주지역 문예지 '아시아 서석문학' 가을호 발간

광주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Asia  
서석문학' 가을호(43권·사진)가 발간  
됐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 '작가 탐구'에  
김한호 수필가를 초대했다. '김소월  
시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연  
구가이며 수필가인 김 작가는 2013  
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수필문학상'  
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수필은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시선을 형상화한 글이라는 평이 따른  
다. 여기에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의 의지가 투영  
돼 있다.

두 번째 특집으로 강만 시인의 자작  
시 해설이 수록돼 있다. 광주문인협회  
장을 지낸 강 시인은 '토루소 2', '고추  
잡자리' 등 모두 7편을 게재하고 직접  
해설을 했다. 대표작 '토루소 2'는 모  
든 통로가 막힌 절망적 공간에서 잔혹  
하게 학살당했던 광주시민의 운명을  
형상화했다. 원래 '토루소'는 머리와



팔 다리가 모  
두 절려나간  
몸통의 조소  
작품을 일컫  
는 용어이다.  
세 번째  
특집 '시숲'  
에서는 무안  
출신 이창민  
시인을 조명했다. '풍경', '가거도' 등  
모두 9편이 수록된 작품에선 오랫동  
안 시를 습작하고 다듬어온 공력이 문  
어난다. 남도문학 부회장과 서은문학  
회 흥보이사를 맡고 있는 시인은 스승  
인 고문병란 시인을 통해 시를 쓰는 법,  
시를 대하는 법을 배웠다. 지난해  
고백을 맞아 첫 시집을 펴릴 만큼 시  
적 성취가 만만치 않다. 이밖에 신예  
심사위원 시인의 '그리움' 외 모두 10편  
과 아시아지역 문화탐방을 소재로 심  
재학, 신서영, 이재월 시인의 신작이  
실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